



[연합속보](#) | [국제](#) | [정치](#) | [경제/산업](#) | [사회/지방](#) | [문화](#) | [스포츠](#) | [정보/과학](#)

한국인 징용자, 日기업 美 법원에 첫 손매소

(도쿄=연합뉴스) 이홍기 특파원= 일제의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국인 3명과 필리핀인 2명이 16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각각 미국에서 제기했다.

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들 한국인은 미쓰비시(三菱)상사, 미쓰이(三井)상사, 신일본제철, 쇼와(昭和)전공 등 12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냈다.

이들 한국인은 소장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수년간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조선소나 광산 등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당시의 참상을 증언했다.

또 필리핀인 2명도 태평양 전쟁 당시 면화농장과 광산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고 일본 기업과 관련법인 26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.

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7월 제2차 세계대전중 나치정권과 그 동맹국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소송을 국적을 불문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시킴에 따라 취해졌다.

aad52640@pop01.odn.ne.jp

(끝)

[\[< 이전화면 \]](#)

[Home](#) [Money Info](#) [Entertainment](#) [Music Bank](#) [Life](#) [Sitemap](#)

Copyright(c) 2000 [YONHAP NEWS AGENCY](#)